

공산체제에서의 민족주의와 개인숭배 —루마니아와 북한 비교—

윤 덕 희

목	차
I. 서론	III 개인숭배의 특징 및 규모
1. 민족공산주의	IV. 개인숭배의 설명
2. 개인숭배의 일반적고찰	1. 정치문화적 요인
II. 개인숭배의 대두	2. 민족공산주의와 개인숭배
1. 개인권력의 구축	V. 결 론
2. 일인지배체제의 확립	

I. 서론

1. 민족공산주의

본 논문은 북한의 김일성정권과 1989년 12월 유혈시민혁명으로 무너지기 이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정권에서 실행되었던 독특한 현상인 개인숭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동유럽 정치·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 국가와 지정학적 조건이 전혀 상이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비교요인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의 북한과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에 대한 초보적인 관찰을 통

* 이 연구는 1991년도 教育部 社會主義圈 研究 支援金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해 우리는 이들간의 비교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차우세스쿠정권이 무너지기 이전 두 나라는 20세기 말 개인숭배를 실행하고 있는 유일한 공산국가들이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점은 두 공산체제 모두 1950년대 이후 나타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흐름인 「민족공산주의」 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한 흐름으로서 소련 모델을 전적으로 유지·영속시켜 나가면서 그 이데올로기적 표방을 일반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혼합에 의거하는 체제를 뜻한다.¹⁾ 즉 국가의 독립이라는 명목하에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하며, 공산체제의 근본적인 성격을 유지·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1960년 알바니아의 호자, 1962~3년 루마니아의 게오르규-데즈, 1950년대말 60년대초 중국의 마오와 북한의 김일성 등은 각기 그들 나라에서 민족공산주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민족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형성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우선 이들 나라의 공산권력이 먼저 소련으로부터 자율·자주를 내세우면서 소련공산당과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공산권력은 국민들 사이에 내재해 있는 민족 감정을 부추기면서 민족주의를 공산체제의 주요 합법화 수단, 즉 통치이데올로기로 이용하는 것이다.

민족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소련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주요배경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민족공산주의는 스탈린사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들 나라 공산당과 소련공산당과의 갈등은 흐르시초프가 소련내부와 위성국가들에서 펼친 비스탈린화 캠페인에 의해 발단되었다. 이들은 공산당 지도부내의 집단지도체제, 경제개혁, 서방과의 평화공존

1) I. Yannakakis, "Monocentrisme, fait national, nationalisme," in P. Kendé et K. Pomian(éds), 1956: Varsovie-Budapest (Paris: Seuil, 1978), p.88.

등으로 집약되는 일련의 비스탈린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스탈린식 사회주의건설 모델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다. 즉, 당지도부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신념이 소련 새 지도부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소련과의 충돌이 이들로 하여금 자주노선을 표명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산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소련과의 분쟁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소련과의 분쟁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과의 분쟁은 각 공산당 지도부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

이러한 민족공산주의국가들 중에서 루마니아와 북한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짓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민족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자생적 공산혁명을 통해 공산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루마니아만이 다른 민족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생적 공산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공산정권의 수립은 전적으로 모스크바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공산정권들은 체제전환기와 공산정권확립기 동안에 소련에 매우 의존적이었으며 위성국가들 중 스탈린식 모델의 사회주의건설 방식에 가장 충성스러웠다.

둘째,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비록 민족공산주의 국가들이더라도, 스탈린 사후 폭넓은 체제변화를 경험하였다. 국제공산주의 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스탈린주의의 가장 엄격한 특성들 (제도적 테러, 일인독재)이 점차 완화되어 권력과 사회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민족공산주의를 채택했던 유고슬라비아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루마니아와 북한, 그리고 알바니아만이 스탈린식 권력행사를 굳건히 유지하였다.

세째, 스탈린 사후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국내문제 또는 소련과의

2)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알바니아의 소련과의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P. Lendvai, *L'Europe des Balkan apres Stalin*, (Paris : Fayard, 1972)를 참조할 것.

갈등으로 인해 소련과 직접 충돌하는 위기를 겪었다. 중부유럽에 위치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체제의 민주화와 민족적 자율을 요구하는 시민봉기를 봉쇄하려는 모스크바의 무력개입으로 심각한 위기를 체험하였다. 1956년의 헝가리 민중항쟁, 1968년의 프라하의 봄, 1980~81년의 폴란드 자유노조 사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중국 등의 민족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주선언 또는 모스크바와의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인해 소련과 결정적으로 국교를 단절하였다. 단지 루마니아와 북한만이 사회내의 갈등으로 소련과 충돌한 적도 없었고, 공산당의 요란한 민족독립 주장과 국민들에 의한 잦은 반소감정 표출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부터 결별당하지도 않았다.

넷째, 루마니아와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들과 지도자의 개인숭배를 실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원래 개인숭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제와 연관된 현상으로 여겨졌었다. 레닌, 스탈린에 이어 마오와 1950년대의 모든 「인민민주주의」 국가에는 「小스탈린」이 존재했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난하고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으로 당지도부내에 일종의 다원주의를 도입한 이후, 개인숭배는 공산권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외면한 민족공산주의체제에만 한정된 현상 같다. 그러나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인숭배는 가장 최근까지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도 그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개인숭배의 시조인 스탈린과 마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 개인숭배의 일반적 고찰

개인숭배는 인간생활의 가능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지도자에게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자질과 장점을 부여함으로써 그를 신격화하려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개인숭배는 소련 및 동유럽,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교적 널리 퍼져있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서구 전문가들에 의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실제의 자연스런 결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숭배는 「현존사회주의」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개인숭배 현상에 대한 첫번째 설명으로 「권력이론」을 들 수 있다. 액톤(Acton)경의 유명한 속담이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듯이, 역사속에는 수 없이 많은 무자비한 폭군들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우익 권위주의체제의 독재자들—보카사, 이디 아민, 마르코스, 박정희 등—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공산지도자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었다. 권력이론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본질상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권력의 행사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통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권력을 축적시키게 되고, 권력이 집중되면 될 수록 대중의 갈채와 동경을 받고 싶은 욕망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공산체제는 지도자들에게 통치기간을 보장해줌으로써 한 개인이나 그룹이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최근까지 서구 전문가들은 권위주의체제의 독재자들과 공산체제의 「독재자」들과의 비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해오곤 했다. 즉, 비공산 독재자들은 비록 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통치기간 중에 축출당했다. 그러나 모든 공산국가에서는 일단 개인숭배가 시작되면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스탈린과 마오의 개인숭배는 이들 사후 비난을 받음으로써 끝이 났으며, 마찬가지로 티토와 호자는 죽어서야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의 개인숭배가 금지되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만이 1989년 12월 유혈시민혁명으로 공산체제가 무너짐으로써 공산주의 역사상 독재자 통치기간 중 개인숭배를 멈춘 유일한 예를 남겼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연사하고 그전에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순조로이 이행된다면, 루마니아의 경우가 공산체제에서 개인숭배가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예가 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도자의 단순한 통치기간 보다는 그가 장

악하고 있는 권력의 성격과 체제의 성격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익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권력은 그것을 장악한 자들의 세력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산체제에서는 권력은 지도자 개인이나 그룹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근거, 즉 레닌식 당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권력의 독점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어진다. 지도자는 중앙에 있는 독점기구의 의지를 상징함과 동시에 체제의 유일한 조정 요소로서 체제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책임지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불오류성은 체제의 불오류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통치기간 동안 지도자의 개인숭배가 중지된다는 것은 그의 개인권력은 물론 체제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 개인숭배에 관한 또다른 유형의 해석은 혁명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격한 혁명을 치루는 모든 사회는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사회혁명이라는 어려운 전환기 동안 대중동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강력한 지도자, 정치적 「천재」 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³⁾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은 혁명의 깃발아래 인민대중을 집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도자는 前衛계급인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논거는 2차세계대전 이후 동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체제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小 스탈린’들의 출현을 합리화시킨다.

네째로 개인숭배는 공산체제 중에서도 특히 자생적인 공산혁명을 통해 공산정권을 수립한 나라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스탈린, 마오, 티토 그리고 호자의 경우 개인숭배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전을 통해 얻은 혁명가로서의 개인적 권위에 기초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숭배를 실행하는 공산지도자들은 민족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하고 있으며 이

3) R.C. Tucker, *The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Daedalus, Summer, 1968, pp.268

러한 점에서 개인숭배 현상과 민족공산주의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족공산주의국가들 중에서 중국,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와는 달리 루마니아와 북한의 공산정권은 자생적 혁명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이 각각 그들 나라에서 최고권력을 잡았을 때 공산혁명의 상징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개인권력을 얻는데 있어서 이들은 권력투쟁과 인민대중 사이의 이미지 조작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루마니아와 북한에서의 개인숭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숭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숭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레닌식 당의 '정상적'인 권력투쟁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권력의 집중과 상징 및 의인화된 신화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숭배와의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상징과 신화는 모든 체제에 있어서 권력과 개인적 권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지도자가 장악하고 이를 통해 개인숭배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의 「정상적」인 형태를 띤 개인권력의 구축과정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어서 정권이 어떻게 개인숭배를 조직하는가, 정치·사회 생활에서 그 범위는 어떠한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도자의 개인권위의 주요근거는 무엇인가?
- 권력이 개인숭배를 조직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만큼 사회의 일부 전통적인 가치들을 이용하고 왜곡하는가?
- 이 체제에서 개인숭배의 기능은 무엇인가?
- 이들 공산체제에서 결국 민족주의와 개인숭배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 이들 체제에서 얼마만큼 민족주의이데올로기가 개인숭배의 과격성

에 기여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통해 두체제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나오는 개인숭배의 몇몇 공통점을 도출함으로써 각 정치체제에 있어서 개인숭배의 중요성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개인숭배가 형성된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개인숭배 현상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들 공산체제에 있어서 개인숭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들 체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개인숭배의 대두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가 최고권력을 장악한 이후 그에게 「전지전능」, 「불멸」 등의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산권력이 흔히 「김일성주의」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정치체제와 최고 지도자간에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체제의 「개인화」는 개인숭배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나타난 결과로서, 이는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반대파 숙청을 포함하는 권력투쟁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 일인지배체제를 확립시키는 이데올로기작업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1. 개인권력의 구축

김일성과 차우세스쿠는 각기 그들 나라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의 제1세대에 속했다. 비록 두 나라에서 혁명의 성격은 달랐지만-김일성이 참가했던 혁명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의 성격을 지녔으며 제2차대전 이전 루마니아에서의 혁명활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통노선의 범주에 속했다-이들은 둘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의거한 사회혁명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주요흐름(1921년 서울에서 창립된 「조

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를 제1세대 공산혁명이 대열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⁴⁾ 마찬가지로 차우세스쿠가 그의 젊은 나이 때문에 국민들과 동료 지도자들에 의해 공산주의운동 제1세대의 핵심인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루마니아공산당의 지하운동시절 그의 혁명활동은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과 차우세스쿠는 권력장악 당시 둘 다 완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 공산주의 투쟁가였으며 「기회주의자」나 외부 강대국 공산주의자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차우세스쿠의 경우 그가 게오르규-데즈의 뒤를 이어 1965년 3월 루마니아노동당의 서기장직에 올랐을 때 그는 잘 알려지지 않는 당 중앙위원회 서기였다. 그러나 그는 '10년 이내 루마니아의 민족독립의 사수'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독창적이고 빛나는 사상가로서 절대적 지도자가 되었다. 1965년 당시 그의 세력기반은 별로 특별한 것이 못되었다. 첫째, 그때까지 차우세스쿠는 당내에서 밑바닥부터 매우 확고한 활동 경험을 쌓아왔다. 둘째로, 그는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전임자 게오르규-데즈와 마찬가지로 혁명 제1세대에 속했다. 셋째로, 그는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가 받은 교육은 1930년대 부카레스트의 소규모 지하공산조직에서 받은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그의 생은 청년시절부터 혁명활동을 통한 공동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 또한 차우세스쿠는 대부분의 다른 동구 공산지도자들이 소련에서 교육받았던 것과 달리 게오르규-데즈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교육받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차우세스쿠는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이며 혁명가가 될 수 있었다.

4) Suh Dai-sook, "A Pre-conceived formula for Sovietization in North Korea", in T.T. Hammond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5, p.478.

5) V. Tismaneanu, "Ceausescu's Socialism", *Problems of Communism*, Jan-Feb. 1985, pp. 50-66.과 Radio Free Europe, Romanian SR/3, 14 Feb. 1984. 참고.

한편으로 차우세스쿠는 권력유지와 개인권위의 확립을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산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력기반을 사용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혁명지도자로서의 권위(카리스마), 둘째 폭력, 셋째 외부의 지원 등이다. 많은 공산지도자들에 있어서 자생적인 혁명을 통해 얻은 혁명적 권위와 카리스마는 핵심적인 세력기반이었다. 레닌, 마오, 티토, 카스트로 등이 그 예다. 폭력, 그리고 체제가 개인이나 사회그룹에 가하는 반복적이고 자의적인 폭력인 테러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다. 이 방면에서 가장 유능한 공산지도자는 스탈린이었으나, 공산지도자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당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매우 드물 것이다. 또 다른 세력요소는 외부의 지지로서, 소련의 붉은군대의 도움없이 공산당이 권력을 잡을 수도 통제를 유지할 수도 없었던 대부분의 동구공산국가들과 북한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1965년 당 최고자가 되었을 때 차우세스쿠는 이들 요소 중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는 양차대전 중간기에 루마니아공산당의 지하활동 기간 중 활발한 혁명활동에 참가하였지만 당에는 그보다 훨씬 유명하고 원로인 지도자가 많았다. 또한 정치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테러로 사용할 수 없었다. 군내에서 그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당지도부에서는 그의 정적인 드라기치(Draghici)가 내무성과 비밀경찰을 장악하고 있었다. 차우세스쿠는 그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게오르규-데즈에 의해 루마니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자주노선」이 굳건히 확립되었으며, 차우세스쿠도 국제정치에서의 우선순위를 반소적인 정책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당의 최고권력자가 된 차우세스쿠는 처음 2년간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전임자 게오르규-데즈의 몇몇 동료들과 권력을 공유한 후 1967년 국가평의회회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74년 3

월 그를 위해 만들어진 「공화국대통령」직을 맡게 되기까지 당과 정부내의 여러 직을 축적하였다.

차우세스쿠는 개인적 권위와 정치체제에 대한 굳건한 통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였다.⁶⁾ 1) 새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타협과 이중성 2) 당 중간간부들의 승진을 통한 조작 3) 정치과정에서 합법성과 헌법성의 강조 4)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내건 정치동원을 통한 인민대중에의 직접적인 호소 등이 그것이다. 차우세스쿠가 노린 목표는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정적들—특히 그의 전임자 데즈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서 개인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첫 단계에서 차우세스쿠는 우선 당기구의 개편을 통해 그에 충성할 신진간부들을 당 요직에 발탁하였다(1965년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을 대신할 ‘상임간부회의’ 창설). 이어서 당과 정부의 기능들을 통합하여 정부수반을 겸임함으로써 개인권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1967년 10월 당 국민회의). 개인권력의 집중을 위한 두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권력 확립과정인 권력 투쟁단계다. 그는 당내 숙청작업을 통해 게오르규-데즈의 옛 측근들을 집행위원회와 상임간부회의에서 제거하였으며 그들이 범한 ‘범법행위’의 책임을 데즈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옛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차우세스쿠는 이제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의 유일하고 진정한 주창자로 자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의 쇄신과 ‘민주화’를 주도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권력집중의 마지막 단계는 1974년 차우세스쿠가 그를 위해 특별히 신설된 ‘공화국 대통령’직에 선출되고 그의 아내 엘레나 차우세스쿠가 상임간부회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때 루마니아에서는 우상화작업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었다.

6) M.E. Fischer, "Political Leadership in Romania under the Communists", 1986년 파리에서 열린 루마니아학술 대회에 제출된 논문, p.39.

북한 공산체제는 보통 ‘김일성주의’로 특징지워 지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정치체제와 그 지도자를 동일시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 북한에서의 권력과 체제의 개인화는 루마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지도부 내의 권력투쟁을 통한 김일성 개인권력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북한에서 공산정권수립 당시 김일성의 권력은 갑산파의 조직력과 소련점령군의 막강한 지지 덕분에 그다지 보잘것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조선노동당 지도부내에서 경쟁세력들이 제거되고 갑산파가 우세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다른 당파와의 권력투쟁을 통하여 김일성은 개인권력을 위한 조직기반과 북한체제의 리더십 스타일을 점차 수립하였다.

김일성은 개인과 그의 파벌의 권력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경쟁세력에 대한 당의 단합이라는 명목하에 무차별적인 투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새 엘리트의 적극적인 충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다.⁷⁾ 김일성의 반대파에 대한 숙청과정을 요약해 보면, 1945~50년에는 조만식등 조선민주당의 민족진영 인사와 오기섭등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했고, 1950년대에는 무정등 연안파와 허가이등 소련파, 박헌영·이승엽 등의 남로당계, 그리고 1956~58년까지의 김두봉·최창익(연안파)와 박창옥(소련파) 등의 ‘8월종파’에 대한 숙청이 행해졌다. 1960년대에는 박금철등 갑산파내의 일부 측근들의 숙청이 있었으며, 특히 김일성의 후견인격이었던 소련파 허가이의 자결은 김일성 일인독재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고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는 1961년 9월 제4

7) 통념과는 달리 북한 당지도부의 변화와 전개과정은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연안파는 물론 소련계 한국인들도 당지도부내의 권력투쟁에 있어서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갑산파에 대해 심각한 경쟁을 한번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 Suh Dai-sook,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참고.

차 당대회를 계기로 확립되었다.⁸⁾

이러한 당내의 권력투쟁과 함께 김일성의 개인숭배 캠페인도 강화되었다. 김일성의 개인숭배는 항일혁명투쟁의 상징성과 북한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거한다. 김일성은 일제시대의 전설적인 영웅의 이름을 도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신비하고 신화적인 매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그 자신도 일본군에 대항해 싸운 소규모 게릴라군의 우두머리로 인정받고 있었다. 김일성의 정체와 그의 항일투쟁 경력에 관해 모호함과 논쟁이 많지만 대체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항일투쟁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⁹⁾ 또한 6·25이후 북한의 재건과 경제향상은 비록 그것이 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내핍과 노동의 덕이었지만 그 공은 모두 지도자 개인의 공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초까지 이러한 캠페인은 김일성의 혁명활동에서 출발한 “영웅화”의 형태를 띠었으며 아직 ‘신격화’의 형태는 아니었다. 신격화는 1960년대 중반 주체사상의 수립과 함께 시작하였다.

2. 일인지배체제의 확립

루마니아와 북한에 개인숭배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의 권력투쟁에서 지도자가 승리를 거둔 다음이었다. 그리고 개인숭배는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주요 이데올로기로서 북한에

8) 이에 대해서는 R.A. Scalapino &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를 참고할 것.

9)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교수는 김일성을 1930년대 말 “만주에서 가장 비중있는 게릴라”로 여겨졌다고 단언한다. 적어도 김일성의 항일투쟁 과거는 “그의 나이로서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거나 항일 게릴라 우두머리로서의 그의 장점을 깎아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Scalapino & Lee, *Communism in Korea*, op. cit., t I : pp.202-232. Suh Dai-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293. Yang Sung-chul, “The Kim Il-sung cult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Printemps, 1980, p.170.

서는 주체사상을, 루마니아에서는 민족주의를 채택하고 나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정치·사회 모든 면에 있어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가 김일성의 개인숭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에서는 민족독립에 대한 차우세스쿠의 요란한 주장이 차우세스쿠의 우상화 시작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의 상승은 루마니아 당지도부 내에서 그의 정적인 원로지도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1967년에 당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권력 계층의 중요한 자리에 두루 앉힌 후에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권력의 개인화가 명백해지는 시기는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에서 당파그룹들이 사라지고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가 조선노동당 내에서 유일한 조직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였다. 그러나 이 당시 루마니아와 북한에서는 아직 우상화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차우세스쿠의 개인숭배는 루마니아체제가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주요 공식정책노선으로 내건 것과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루마니아의 민족주의정책은 처음부터 지도자 개인과 밀접히 연관지어졌다. 차우세스쿠는 그의 통치기간 초기에는 민족의 자주, 정치개혁,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존중, 급속도 경제발전 등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동조로 진정한 인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¹⁰⁾ 그러나 1960년대말 차우세스쿠의 인기는 현실보다 오히려 희망과 기대에 의한 것이었다. 제10차 당대회 이후 당지도부내에서 그의 주요 적들을 제거한 후 차우세스쿠는 그의 스탈린주의적 정치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그의 정책은 루마니아 대다수 국민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목적과는 점점 더 멀어져갔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분야였다. 차우세스쿠는 계속해서 중공업분야에 높은 투자를 하였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공

10) M.E. Fischer, *op.cit.* p.45.

업에 투자를 등한시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에 들어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물론 경제전반의 위기가 초래되어 경제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나 차우세스쿠는 더욱 스탈린식의 중공업 위주의 급속도 산업화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대다수 국민들은 체제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차우세스쿠는 국민여론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국민들의 열망을 변화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그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했다. 결국 지도자의 정책과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괴리를 메우기 위하여 차우세스쿠와 그의 동료들은 온 국민이 충성할 「우상」을 만들어내야 했다. 따라서 차우세스쿠정권 초기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던 민족주의정책은 1970년대부터는 실질정보다는 정권의 합법성과 차우세스쿠 개인의 우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화되어 점점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1961년까지만해도 김일성에 대한 개인우상화보다는 당의 권위와 업적에 치중된 선전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는 개인우상화가 당의 권위와 업적찬양에 우선하는 한편 김일성을 ‘경애하는 수령’으로 지칭하기 시작하였으며, 1966년에는 김일성의 신분호칭에 장황한 수사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1967년 9·9절 이후부터 본격적인 우상화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김일성 우상화정책이 더 한층 강화되어 김일성의 혁명사상 또는 유일사상을 모든 주민에게 교양시키는 한편 각급 학교에서도 김일성사상 연구를 필수과목화했고,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우상화정책은 최고절정에 달함으로써 북한에서의 모든 물질·문명의 절대가치의 근원 또는 내원이 김일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간행물, 문서, 연설에서 마르크스나 레닌의 말보다도 김일성의 말이 모든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이론과 실제

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원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신문에서 점차 사라져 갔으며 김일성과 당과 북한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같은 본격적인 김일성 우상화는 그의 가계에 대한 신성화로 이어졌고, 그것은 또한 족벌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면서 삼위일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 우상화가 진행되면서 김일성일가는 19세기 중엽부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일가로 기술되어오고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가계는 모두 반일 혁명전통을 가진 가문이 되어 그 유적들이 성역화되었다.

Ⅲ. 개인숭배의 특징 및 규모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의 신격화에서 나타난 이미지는 매우 유사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도자 개인의 도덕적·지적 자질,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혁명가, 민족영웅의 계승자인 민족주의자 등이 그것이다.

첫째, 공산국가에서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과 혁명적 자질을 통해 지도자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며 오히려 평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루마니아와 북한에서의 독특한 점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민족과 민족사의 상징으로서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공산당 수반의 이미지는 '군주'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1974년 차우세스쿠가 대통령직에 올랐을 때 당기관지 '친테라(Scinteia)'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974년 3월 28일은 조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의식속에 새겨질 것이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민족 전체의 의지를 수행하면서 대국민의회는...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대통령임을 선포하였다... 루마니아민족의 가장 훌륭한 아들이며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국가

원수들을 승계한 지도자는 우리의 첫번째 대통령이다...¹¹⁾

1966년부터 차우세스쿠는 그의 권력과 민족사를 동일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루마니아 고대 전설적인 왕 브레비스타 이후부터 루마니아의 정치적 연속성과 로마시대 이전 다스시대의 유산을 강조하면서 민족영웅의 범주에 많은 봉건군주들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다스족과 신화적 군주 브레비스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차우세스쿠가 다스시대 이후 민족적 지도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스왕 브레비스타는 루마니아 공산당의 창시자가 되는 한편 차우세스쿠는 점차로 그의 직계자손이며 민족사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해 근대사와 현대사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 개인 뿐만 아니라 그이 먼 조상까지 신격화하기 위해 신화가 조작되었다. 김일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아버지 수령님, 민족의 태양이시고 불세출의 전설적 영웅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 우리민중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 조선인민들과 함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경모하여 마지 않는 인류의 태양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각하...”¹²⁾ 이와 같이 김일성의 이미지는 민족의 영웅, 선하고 인민들을 굽어살피는 군주, 개인적으로 인민을 희생적으로 보살피는 「아버지」 등의 이미지가 수립되었다.

11) *Ibid.*, p.34에서 인용.

12) 이상민, 「북한의 정치과정에서의 우상화실태분석」, 현대사조와 한반도,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4집, 1988, pp.68-72 참조.

둘째로,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의 개인숭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상가이며 정치가라는 선전이다. 북한의 언론과 출판물들은 김일성을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적 사상가」, 「『김일성주의』로 전 세계의 수억인구를 해방시킨…동서고금의 전례가 없는 인류의 태양」이라 칭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일종의 ‘제단’이 된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는 ‘민족의 요람이며 보석’일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요람」으로 칭송되고 있다.

차우세스쿠의 개인숭배 역시 루마니아의 국경을 초월한다. 그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1인자이며 동시에 “새로운 국제 정치질서 및 경제질서의 챔피언”으로 묘사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언론과 출판물은 “오늘날 지구전체가 차우세스쿠의 깃발아래 살고 있다”, “전 세계가 인류 최상의 열망과 그 자신을 일체시키는 자에게 한없는 존경을 보낸다.”, “차우세스쿠 동지는 과학적·일상적 국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¹³⁾라고 칭송하고 있다. 동시에 차우세스쿠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각종 훈장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루마니아 출판물의 대부분이 차우세스쿠의 저작들이다.

세째로, 지도자를 훌륭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가며 혁명가라 칭송하는 모든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와 북한에서도 지도자의 인격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체제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정통적인 이데올로기의 모범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개인숭배의 전개과정에서 지도자는 단순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신봉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해석자가 되었으며, 나아가 창시자들과 같은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근원 자체가 되었다.

우선 북한과 루마니아정권은 그들 지도자가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조

13) Omagiu Presidintelui Nicolae Ceausescu, Bucurest, 1978, *L'Alternative*, No 20, 1983, p. 81에서 인용.

주의자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출신성분을 농부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린시절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음을 자주 강조하였다.¹⁴⁾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의 행적은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정통적 흐름에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조선 공산당 청년동맹과 조선 혁명군, 나아가 조선공산당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다. 이는 물론 위조된 것으로 김일성의 행동은 언제나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시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그의 신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루마니아에서도 차우셰스쿠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같은 종류의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의 농촌 출신성분과 노동자 신분이 자주 강조되었으며, 그의 혁명경력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에 대한 충성심이 공산주의자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나라에서의 개인숭배의 전개과정에서 지도자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의 이미지가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에 단순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자'에서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원' 자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종류의 이미지가 개인숭배의 발달과정을 통해 계속 나타나고 있으나 후기 단계에서는 두 번째 이미지가 훨씬 명백히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 김일성과 차우셰스쿠는 모두 보편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처방된 원리에 따라 그들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애쓰는 '뛰어나고 독창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자'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정태적으로 이론을 수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독창적인 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풍부히하고 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직접 기여한 지도자로 이미지가 구축되었다. 주체라 불리우는 김일성의 사상은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최종 단계'를 이루는 보편적인 사상이 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14) Baik Bong, *Kim Il-sung*, Paris : Jeune Afrique, 1970, p47.

‘창조자’로서 김일성의 이미지는 ‘김일성주의는 현대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이며 현대는 곧 김일성의 시대다’라는 구호에서 정점을 이룬다.

루마니아에서도 차우세스쿠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원 자체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통적 이데올로기가 지칭되었는데,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있어 민족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었다. 차우세스쿠에 의하면, 민족은 역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세계문명과 그 진보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산주의의 미래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요소로서 존속할 것이다.¹⁵⁾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민족이 지속적이고 진보적인 본질을 지녔으며, 국제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독자적인 본질을 갖는 확고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개념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계급이 갖는 독점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민족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본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나아가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민족의 발전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민족이익의 가장 충실한 대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¹⁶⁾ 또한 민족형성에서부터 사회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연속적인 역사관을 제창함으로써 당의 역사와 민족사의 불가분성을 주장하였으며 민족과 당사이의 연속성을 수립하였다. 차우세스쿠에 의하면 애국자의 정의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당을 동일시하는 것”이다.¹⁷⁾ 결과적으로 루마니아의 공식적 입장에 의하면 ‘민중=당=루마니아’라는 방정식이 성립되고 이는 곧 차우세스쿠와 당의 일치에 의한 ‘민중=차우세스쿠=루마니아’, 그리고 결국 ‘차우세스쿠=루마니아’

15) 1972년 루마니아 공산당 국민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사회주의 민족의 부흥과 루마니아사회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와 이 대회에서 차우세스쿠의 연설문 참조, *Scinteia* (1972.7.20).

16) *Scinteia*, 1982.7.23.

17) *Revista de istorie*, No.12(1979), p.20.

라는 공리가 성립된다.¹⁸⁾

이렇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내에서 묘사되는 김일성과 차우셰스쿠의 개인숭배는 지도자들을 독트린의 해석자이며 동시에 창시자로서 이미지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자에서 창시자로서의 이미지 전환은 체제의 정통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들의 지도자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함께 국민들로 하여금 대내외적으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주의 감정을 강화시킴으로써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한다. 또한 차우셰스쿠와 김일성을 이데올로기의 창시라고 부각시킴으로써 공산정권은 지도자의 우상화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집단주의적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모순을 극복해 보려 했을 것이다.

Ⅳ. 개인숭배의 설명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인숭배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정치문화적 요인과 민족공산주의체제 자체의 속성을 들 수 있다.

1. 정치문화적 요인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개인숭배를 비롯한 특이한 정치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치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과거로부터

18) 북한의 주체사상도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예로 1992년 9월 1일 평양방송의 논설 『자기 수령께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품성』에 나온 다음과 같은 귀절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김일성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 나가는 것은 수령·당·대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해서 수령을 가장 진실하고 순결하게 모시며 변함없이 영원히 받들어 나가는 자세와 입장임”

내려오는 전통 또는 정치문화의 영향이 오늘날 이들 공산국가에서의 정치풍토와 정치체제를 만들어 내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는 것이다.¹⁹⁾ 각 나라의 공산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전통적 정치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원용시켜 나감으로써 독특한 공산체제를 형성시켰다.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개인숭배는 이들 체제가 벗어나고자 했던 정치적·문화적 전통에서 그 원인(遠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 중 우선 전제주의는 고대시대부터 각각 루마니아와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이루어왔으며 그 뿌리는 농경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가족은 가장과 조상의 권위를 따랐으며 흙을 보호하는 왕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였으며, 농민들의 순진한 왕정주의는 왕을 초인간적이고 신비한 인물로 섬겼다. “왕은 인민을 굶어 살피고 있다”라는 귀절이 암시하듯 인민대중은 멀리 있지만 항상 옳고 선정을 베푸는 왕에 대해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왕조가 공식 이데올로기서 채택한 유교는 한국 농경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왕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에 의한 인간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문화였다. 유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질서와 위계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의 신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지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윗사람에의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유교의 법칙은 통치자와 왕에 대한 인민대중의 숭배전통을 강화시켰다. 또한 군주제는 조선의 식민지화 이전까지도 조선 인민이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갖도록 해주는 상징의 역할을 했다. 19세기 말의 농민봉기는 왕에 대항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부패한 왕의 측근과 신하들에 대

19) 조비트(K.Jowitt)는 루마니아 공산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농경사회의 전형적인 행동양식과 공산체제의 단일주의적인 에토스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K.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5*,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54-67.

항해 일어났다. 역사가들에 의해 근대적 의미의 ‘부르조아’ 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개혁주의운동도 근대화의 개혁에 주요장애였던 왕권의 강화를 오히려 주장했다. 더욱이 서양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엘리트들의 주장은 내용에 있어서는 새롭고 근대적이었으나 그들이 개혁을 위해 사용한 수사와 상징들은 온전히 전통적인 방법들이었다.²⁰⁾ 일본 식민지 정책은 조선인민의 왕에 대한 충성을 단절시켰으나 상징주의는 일본천황에게 계속 작용하였다. 36년간의 민족적 일체감을 말살시켰던 식민지에서의 해방과 함께 국민들 개개인은 민족적 일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격화된 상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둘째로,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개인숭배는 농촌사회에 뿌리내린 종교성과 맑시즘에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소수국민, 즉 당원과 사회주의혁명 운동가들은 물론 대다수 교육받지 못한 인민대중에 의해 존경받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숭배는 맑시즘 이데올로기 차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민족주의적 차원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 충성심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 공산정권은 지도자 개인에게 다양한 자질들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국민계층을 동시에 끌어 모을 수 있었는데, 이는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의 이미지에 나타난 왕과 혁명가의 이중성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세째로,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개인숭배를 설명할 경우, 개인숭배의 등장과 발달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위로부터 강요된 현상이 아니라 이들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개인숭배의 정치적 조직화라는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 속에는 다양한 주체들—지도자 자신, 그의 측근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인민대중—이 제 각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개인숭배의 본질을 규정시키고 있다.

20) Lee Chong-sik,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1963, pp. 78-90.

예컨대, 북한에서 개인숭배는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자 제1세대의 의식적·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직되었다. 사실상 체제수립기 동안 김일성 측근의 김일성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만주와 시베리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체험한 전투경험에서 생겨난 연대의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고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숭배윤리에 의거한 행동양식과 두목의 총애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문화에 기인한 태도였다. 노동당에서 발간한 대량의 전기는 갑산파의 지나친 충성심과 김일성의 주의와 총애를 끌려는 경쟁이 이미 1945년부터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²¹⁾ 더욱이 1952년 김일성의 40회 생일을 계기로 박창옥, 박헌영과 같은 경쟁 계파를 포함한 당의 고위 지도자들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노동신문에 경쟁적으로 실었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전통과 정치적 조직의 상호관계는 정치적 통제와 대중의 정치사회화가 당의 레닌주의적 조직에 의해 용이해졌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당 조직은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진 국민들의 순종과 순응, 그리고 생존본능을 차례로 강화시키며, '과잉충성'의 증세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동원성을 고취시킨다. 따라서 루마니아와 북한의 개인숭배 현상은 여러 요소의 개입으로 형성되는데, 이들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농민적 윤리와 전제주의에 젖어 있는 제반 사회계층, 전통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지도층, 그리고 지도자가 그것이다. 즉, 전통, 인민주의적 요소, 공산체제의 정치구호 등의 독창적인 결합이 이들 체제에서 나타나는 의견일치를 형성해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와 북한에서 개인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족벌정치, 또는 '권력의 개인화' 역시 이들 나라의 농경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협동체'가 자치방어적인 기본단위인데, 이는 농경사회에 특유한 '재화의 회소성'으로 말미암아 개인

21) Scalapino and Lee, *op.cit.* t I : pp.428-430 참고.

22) *Ibid.*, pp. 430-1.

이나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농경사회에서 각자는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또한 가족의 안전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체제 내 '당의 가족화'도 농경사회의 삶의 방식인 clientalism(인맥주의)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2. 민족공산주의와 개인숭배

민족주의와의 개인숭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 고유의 역동성은 속성상 지도자의 개인숭배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공산체제의 민족주의정책은 공산주의에 대한 내부의 위협을 막고 외부세력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치통제를 필요로 한다.

(1) 민족독립

공산체제에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이미 독립을 획득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소련에 충성스런 동맹국들과 자주를 주장하는 나라들을 구분해 보면,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숭배가 부재한 반면에 중국,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북한에서는 개인숭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공산권력의 정통성 문제다. 공산체제가 체제의 합법성을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한 내부적 정통성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지역공산당과 보호자인 소련과의 논쟁이 진전되고 지역공산당이 모스크바에 대해 자주적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지역 공산체제는 권력의 정통성을 위해 국내적인 지지를 구하지 않으면

23) K.Jowitt, "Soviet Neotraditionalism the Political Corruption of a Leninist Regime", *Soviet Studies*, no 3, 1983, pp. 142-159.

않되었다. 이때 공산당으로서는 국민의 민족감정을 고취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내부적 정통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욱이 공산정권이 소련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벗어나 반소 민족감정의 기수로 전환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민족 영웅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내부적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민족적’ 공산체제로서는 개인에 대한 대중의 단순한 충성심을 창조해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산당은 가능하면 당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모스크바의 이데올로기적인 권위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적’ 해석자의 권위로 대체시켜야 한다. 혁명가로서 대중적 신뢰를 쌓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대중과 당내 지지자들에 대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루마니아와 북한에서는 공산당의 권력장악이 자생적 혁명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점 때문에, 공산정권들은 우선 공산권력의 민족적 성격을 주장하기 위해 내부혁명의 신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공산권력을 민족과거의 계승자로 만들고, 공산당사와 민족사, 민족의 독립전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민족역사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공산정권은 지도자를 모든 역사적 민족영웅의 합법적인 계승자로 승화시킴으로써 개인숭배 형성과정을 완료시켰다.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민족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개인숭배는 지도자를 혁명적·민족적 상징화하는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강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독창적인 해석자이며 동시에 근원자체라는 주장에 의해서도 강화되었다. 공산체제는 그 정통성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이데올로기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24) Jeremy T. Paltiel, "The Cult of Personality : some comparative reflections on political culture in Leninist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6 spring/summer 1983, pp. 49-50.

원칙은 ‘국제주의’라는 것으로 발전되었는데 그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의 충성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지역공산체제에 대한 소련의 절대적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민족주의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보다는 국내적 고려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과 같은 국제적 공산지도자보다 국내 혁명가들의 권위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루마니아와 북한의 민족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고전은 더이상 국제공산지도자들의 작품들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국내 지도자들의 사진이 그 옆에 공산주의의 위대한 창시자들의 사진에 의해 지원받음 없이 걸려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심지어 스탈린과 마오의 개인숭배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었다. 더욱이 루마니아와 북한에서는 국내 지도자들의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맑스, 엥겔스나 레닌의 고전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국가에서의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시자나 국제공산주의 지도자들에 부여되어 있던 권위의 이전을 필요로 하고 또한 그것을 초래한다. 이러한 권위의 이전은 자국 지도자의 세계적 권위와 불굴성의 신화 창조를 필요로 하며, 이 신화들을 강화하고 영구화시키기 위하여 체제는 개인숭배를 극심한 정도까지 발달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개인숭배는 차례로 인민대중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인민대중은 개인숭배를 무엇보다도 외부강대국에 대해 자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이 개인숭배에 동의하게 된다.

(2) 정치통제

개인숭배와 민족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번째 측면은 정치통제와 관련된다. 민족공산국가에서 굳게 단합된 유일당에 의한 정치통제는 다른 공산국가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첫째, 공

산체제가 자주를 표방한 정치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최고 지도자의 도전받지 않는 개인권력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결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산체제내에서 민족주의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을 생성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통제가 필요하다. 루마니아와 북한이 '소련진영'내에 있는 한, 소련은 이들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관용하지 않았고 이는 강력한 사회통제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 대한 자율은 이들 체제 스스로가 국내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위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도자의 개인 권력과 개인승배는 작은 공산국가들의 강한 정치통제를 가능케 하며, 또한 이러한 강한 정치통제는 작은 공산국가들의 강대국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율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치통제의 수단으로서 권력의 인격화와 개인승배는 한 공산체제의 강대국에 대한 독립이나 자주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독재권력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권력의 개인화와 개인승배는 당의 사회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을 공산권력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 특히 김일성의 개인적 권위와 그에 의해 손수 유지되는 민족주의는 나라의 철저한 폐쇄성을 가능케 하였으며, 신격화된 지도자의 존재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당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복종하고 힘겨운 노동과 생활조건을 감내하게 하였다.

한편, 루마니아의 상황은 시대에 따라 좀더 복잡하다. 1970년대 말까지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셰스쿠가 민족주의이데올로기에 의존해서 정치체제를 장악해옴으로써 당의 사회에 대한 강한 정치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다. 루마니아에서는 스탈린식 급속도 산업화에 의거한 자급자족적 경제정책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았기 때문에 사회통제가 더더욱 절실했다. 민족

독립과 조작된 인격에 의거한 차우세스쿠의 개인숭배는 1970년대 말경 경제위기가 전면적으로 표출될 때까지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국가정책을 이끄는 데 있어 차우세스쿠의 무능함이 점점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개인숭배는 개인권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지탱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V. 결 론

북한과 루마니아 공산체제의 개인숭배는 독특한 정치문화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각 나라 공산주의 전개와 특수성과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흐름과의 상관관계라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거해 과격한 민족주의와 교조적 공산주의의 혼합된 틀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두 나라의 개인숭배현상은 정권의 민족주의이데올로기와 의존하는 민족주의 정책은 민족과 지도자 개인과를 혼동시키면서 개인숭배의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정치,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혁명이데올로기의 쇠퇴를 경험하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경제위기는 곧바로 사회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이에대한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지도자의 강한 카리스마에 의존한 국민화합과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사회주의권의 경제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사회 내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공산정권과 사회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모든 동구 공산국가들에서는 그들 사회 내부의 위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공산정권 주도 하에 경제개혁 및 정치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루

마니아와 북한은 이러한 개혁을 외면한 채 지도자의 개인숭배와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의거한 스탈린식 통치방식을 더욱 강화하였다.

차우세스쿠정권은 마지막까지 체제의 합법성을 지도자의 개인숭배와 강압정치에만 의존하다가 급기야는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인민대중의 무장봉기에 의해 타도되는 사태를 빚어 내었다. 이는 경제위기등으로 정권에 대한 인민의 불만이 이미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이웃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강하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우세스쿠정권의 말로는 김일성정권의 미래를 예견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루마니아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개인숭배는 주체사상의 주입을 통해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어서 차우세스쿠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가 보다 폐쇄적이고, 사회구성원이 보다 단순하며, 경제위기도 차우세스쿠정권 말기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분단 상황을 이용해 국민동원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권 몰락으로부터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루마니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일일것이다. 현재로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향방은 김일성 이후 정치엘리트들의 경제위기 극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권의 근대화 정책이 성공하면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보다 다원화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북한사회주의체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붕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